미혼남녀의 결혼지연에 관한 연구

- 전문・준전문직을 중심으로 -

조 희 금(대구대학교 교수)・어 성 연(중앙대학교 조교수)
고 선 강(성신여자대학교 부교수)

I. 서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5년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였다. 낮은 출산율은 미래의 국가의 생산성과 경쟁력 약화라는 측면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저출산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과 연구를 통해 저출산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저출산과 관련이 깊은 사회현상 중의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것이 만혼과 결혼기피 현상이다. 우리사회는 법적 혼인이 아닌 남녀의 동거에 의한 출산이나 혼외 출산 등이 허용되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결혼의 지연이나 기피는 결혼에 의한 출산의 기회를 줄이게 되고 이는 사회 전체의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결혼지연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초혼연령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은 24.8세, 1997년 25.7세, 2006년 27.8세로 증가하였고, 남성의 평균초혼연령 또한 1990년 27.8세, 1997년 28.6세, 2006년 30.9세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초혼연령의 상승의 추세는 여성의 연령대 별 출산율의 변화 양상과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즉 여성의 초혼연령 상승이 20대 여성의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지고, 30대 여성의 출산율이 조금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김두섭 외, 2007). 김두섭 외(2007)의 연구에 의하면 '2005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의 기혼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7년 이전에 결혼한 사람들의 평균 초혼 연령이 23.6세였고, 1997년 결혼한 사람들의 평균 초혼연령은 26.2세였다. 여성의 경우 직업의 차이에 따른 초혼연령의 차이는 1997년 이전과 이후 모두 전문・준전문직 여성의 결혼연령이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직업과 결혼지연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출산의 다양한 원인들 중 결혼지연이나 기피는 출산율 저하의 직접적인 결정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한국사회의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지연과 결혼기피의 원인을 심도있게 규명하여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준전문직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결혼계획,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결혼 지연의 영향요인, 결혼에 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생각 등을 조사하여 결혼지연의 이유를 규명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미혼남녀의 결혼 지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미혼남녀의 결혼태도, 결혼의향과 결혼시기에 관한 최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사회의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는 여러 통계자료의 분석결과에 의해 알려졌다. 2003 전국가족조사 결과에서 조사대상 미혼남녀 중 남성 28%, 여성 29.6%가 결혼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남성은 경제적 기반부족과 일에 열중하기 위한 이유를, 여성은 일에 대한 열중과 결혼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를 주요이유로 답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혼남성의 71.4%만이 결혼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고, 여성의 49.2%만이 결혼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김두섭 외(2007)은 통계청의 1998년, 2006년의 자료를 비교하여 결혼의 필수성 보다는 선택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결혼의 개인적 선택에 대한 허용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결혼에 대한 태도의 남녀차이가 있으며, 결혼의사와 결혼시기의 결정에 있어서도 성차가 나타나며 남성과 여성의 결혼의사,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5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의 미혼자 자료를 분석한 김정석(2006)은 미혼자의 결혼의향에 있어서 성이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밝혔다. 여러 관련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성은 결혼의향에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여성과 비교해서 남성의 결혼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결혼의 혜택(benefit)과 비용(cost)에 대한 남녀의 인식차이로 설명하며, 남성은 결혼으로부터의 혜택을 여성은 결혼으로부터 비용을 더 인지한다고 해석하였다.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른 결혼의향의 차이에서여성의 경우 연령과 결혼의향의 관계가 남성의 경우보다 뚜렷이 나타나 결혼연령에 대한 규범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고 볼 수 있다. 미혼남성의 경우 교육수준과 취업상태가 결혼의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 교육수준과 취업상태 보다는 독립가구 거주여부, 성과 혼전동거에 대한 개방적 태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과 취업상태가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여성들이 결혼과 취업을 별개로 생각할 가능성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미혼여성들에게 취업여부는 결혼을 결정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노동패널자료를 분석한 이수진(2006)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성차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김정석(200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학력과 취업여부는 남성에게만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남녀 모두의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선택확률이 낮았지만 여성에게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혼전의 생애과정이 결혼 시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은기수(1999) 연구에서도 결혼 전의 생애과정이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양상이 남성과 여성에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먼 과거의 생애과정도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성의 경우 가까운 과거의 생애과정만이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사회에서 일반적이라 여기는 생애과정을 거친 사람이 일반적이지 않은 생애과정을 경험한 사람보다 결혼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성은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연구자는 남성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따르는 생애과정을 경험해야 한다는

규범이 중요한 반면, 여성은 생애과정에 대한 규범보다는 결혼적령기라는 연령규범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하여 남녀의 결혼시기 연장의 원인을 분석한 박경숙 외(2005)의 연구도 남녀의 결혼시기 연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르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1990년 이후 결혼한 남성의 경우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초혼시기가 빠르게 나타났고, 취업여부도 결혼시기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결혼기회가 교육수준과 취업상황에 따라 계층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성의 경우 1990년~1997년 결혼한 여성들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시기가 빠르게 나타났으나 1998년 이후 결혼한 여성들에게는 교육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결혼을 통한 대리적 지위확보의 기능이 축소된 고학력 여성들이 결혼을 유보한 결과로 해석하였다. 여성의 경우 비취업자와 비교하여 취업자의 초혼시기가 늦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으로 고학력 남성이 갖는 고학력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고, 1997년 경제위기 이후로 고용시장의 불안과 남성의 생계부양능력의 약화는 여성의 취업에 대한 욕구 강화와 결혼시기 지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변화를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설명한다.

결혼의향, 결혼시기 등에 관한 최근 주요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성은 결혼의향, 결혼시기 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며, 남녀의 결혼의향,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교육수준과 취업이 여성의 결혼의향 및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가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가 일치되지 않았는데, 특히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고학력전문직 여성들의 결혼의향, 시기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직 및 준전문직에 종사하는 미혼자의 결혼지연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2. 이들의 결혼지연요인은 무엇인가?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포커스 그룹을 통해 수집되었다. 포커스 그룹은 집단 인터뷰의 일종으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특정집단의 성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적은 수의 개인들의 집단토론을 한 두명의 moderator가 이끄는 자료수집 방법이다(Auh, 2006). 일반적으로 50분에서 90분 정도의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moderator는 개방형 질문지를 가지고 집단의 토론을 이끌게 되는데, Focus Group이란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토론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주제에 초점을 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게 된다(Auh, 2006). 상황에 따라서, 포커스 그룹의 도입부에 도입부 설문(Entry Survey)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비슷한 내용을 사전에 물어봄으로써 참가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 토론시간에 발언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의 의견까지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고 되었다(Auh & Shelley, 2007). 이전까지 정책연구나 상업적 연구에서 Focus Group이 유용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 ➢ 특정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적 정보를 얻고자 할 때
- ➢ 앞으로 수행 될 연구의 연구가설을 도출하고자 할 때 그 사전적 접근으로
- ➢ 새로운 프로그램(예, 결혼장려정책), 서비스 혹은 생산품 등의 잠재적인 문제점을 찾고자 할 때
- ➢ 우리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현상(예, 결혼지연, 등)에 관해서 어떻게 참가자들이 말을 하는 가를 배우고자 할 때,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Focus Group이 사용되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하여 결혼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정보를 얻고자 하고, 새로운 결혼관련 정책이나 서비스 등의 잠재적인 문제점을 찾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현상인 결혼지연 요인에 관하여 어떻게 미혼 남녀들이 말하는가에 대해 배우고, 나아가 향후 수행 될 결혼지연 요인 혹은 결혼관련 연구들의 연구가설을 도출 할 수 있는 지식기반이 구축 될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를 위해 양 이틀에 걸친 전문직 남녀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을 진행하였다. 포커스 그룹은 여성과 남성 각각 진행하였으며, 연구자 2인이 참여하여 moderator와 기록자의 역할을 맡아 진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도입부에 도입부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각각 1시간 30분, 1시간 20분의 인터뷰가 진행되었고, 인터뷰 내용은 녹음 후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여성 전문・준전문가 집단은 8명으로 구성되었고, 남성 전문・준전문가 6명이 포커스 그룹에 참석 하였다. 참가자의 연령대는 29살에서 40살까지였고, 공무원, 특수교사, 은행원, 교수, 법관, 행정공보관, 등 다양한 전문직의 종사자들이 참가 하였다. 면접에 참여한 참석자의 연령 및 직업은 <표 1>과 같다.

<표 1> Focus Group I 참석자

여성 전문・준전문직			남성 전문・준전문직		
	직업	연령		직업	연령
1	외국대사관공보관	40세	1	변호사	36세
2	특수교사	34세	2	교 수	35세
3	재정분석가	30세	3	연구원	31세
4	교 사	32세	4	재정분석가	36세
5	연구원	28세	5	고급공무원	28세
6	공무원	28세	6	컨설턴트	38세
7	회사원	29세			
8	은행관리자	39세			

3. 결과 및 해석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모두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혼인 적령기를 여성의 경우 28세부터 32세 까지 남성들의 경우 32세에서 33세로 들었다. 그 연령대를 혼인 적령기로 뽑은 이유로는 결혼을 위한 경제적 준비, 특히 직업적인 안정을 찾은 후라는 응답이 가장 주도 적이었다.

1) 결혼지연의 요인 --직업개발에 대한 투자

전문직 여성과 남성의 혼인 지연 요인으로 공통적으로 떠오른 것은 바로 직업의 개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투자이다. 남성 전문직 참가자들의 대부분이 해외 유학 경험을 포함한 대학원 석사 과정이나 그 이상의 교육을 받았고, 법조계 관련인의 경우 사법고시를 장기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장기간 교육이나 시험준비, 등 결혼 보다는 자기 개발에 투자한 시간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반면에 여성 참가자들의 경우, 자신의 커리어개발을 위하여 결혼이 희생되지는 않았다고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직업생활에 충실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 장시간의 근무시간의 스케쥴을 충실히 따랐다던가 일과 이성교재가 갈등을 빚을 경우 일을 선택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남녀 집단 모두, 본인들이 설정한 혼인 적령기에 정작 본인들은 자신의 개발-몸값을 높이기 위한- 교육에 투자라던가 직업에 몰두를 하고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었다.

2) 이성교제의 기회 -- 기회감소 대 기회확대

결혼지연요인으로 커리어의 개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노력 등이 남녀 집단에 공통적으로 떠오른 주제였던 반면에, 결혼을 위해 그 첫 단계가 되는 이성교제를 위한 기회에 대한 경험은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이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여성전문가 집단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 안정을 찾게 되는 반면에 이성교제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결혼장애요인으로 꼽힌 반면에, 남성 전문가 집단의 경우 적당한 대상자를 찾지 못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이성교제의 기회 측면에서 여성전문가 집단은 기회의 감소를 지적한 반면에 남성전문가 집단은 기회의 확대를 보고한다. 실제로 참가한 전문직 남성들의 경우 보편적인 요인으로 이성교제의 기회부족 보다는 자신의 커리어를 높이는 문제나 부모의 간섭과 같은 외적영향으로 인해 결혼대상을 찾는 범위가 좁아진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타난다. 하지만 각각 개개인의 사례를 들어 살펴 본 바로는 장기간의 직업개발의 기간과 함께 '내가 결혼할 바로 그 여자'를 만나지 못한 점 혹은 이제는 장가를 가야 할 때라고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들었다.

반면에 여성 전문인들의 경우, 자신의 커리어가 개발 될수록 이성교제의 기회가 감소함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35세 이상의 전문직 여성들 일수록 이성을 소개받을 기회의 희박함에 대해 토로하였다. 이는 노산에 의한 출산력 감소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더불어 전문직 여성들이 결혼 대상군에서 매력적이지 않은 존재로 절하 시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다.

3) 결혼결정에 대한 직장생활의 영향력

남녀 집단 모두 본인의 직장 생활이 가까운 장래에 있을 혹은 앞으로의 결혼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여성의 경우, 본인들의 직업의 특성상 출산으로 인한 휴직제도의 혜택도 잘 인지하고 있었고 또한 출산 후 복직과 재취업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혼이나 출산 때문에 직장생활을 그만둘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남성 집단의 경우 맞벌이에 대해서 참가자의 대부분이 찬성을 하였다. 하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본인의 미래의 배우자가 가사 및 육아 등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직업을 갖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전문직의 전업 여성들 보다는 임시직이거나 프리렌서 형태로 고용된 여성들의 직업을 선호 한다고 답하였다. 전문직 여성들이 전문인 남성들을 선호한다는 사회

적 통념 하에서, 이러한 남성들의 의식은 더욱더 전문직 여성들이 결혼대상군에서 선택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좁히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다.

4) 이성교제 기회마련을 위한 대안--결혼 정보 회사 서비스

이성교제의 기회 부족이 여성들 집단에 중요한 결혼장애 요인 이었으므로,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결혼정보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실태와 인식을 탐문하였다. 결혼정보회사의 이용 결과 역시 남녀 집단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결혼정보회사의 서비스를 경험한 전문직 여성들의 경우, 높은 가입비와 함께 소개비를 여성들이 내야 하는 점, 원하는 조건의 상대를 소개 받지 못한 점 그리고 제한된 소개의 기회 등을 꼽으면서 서비스에 대한 강한 부정적인 경험을 토로했다.

반면에, 자신의 직업이 개발 될수록 유리한 조건으로 변모하는 전문직 남성들의 경우 결혼정보회사의 서비스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남성 참가자는 연애를 통해 꼭 좋은 대상자를 고를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최소한 자신, 부모 또는 주변에서 원하는 조건을 갖춘 만남이기에 큰 무리수를 두지 않아도 되어(신뢰롭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실제로 전문직 남성참가자들은 주변에서 결혼정보회사의 서비스를 통해서 결혼에 성공한 사례들을 많이 보았던 것으로 나타나,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한 서비스는 여성전문직과 남성전문직 간에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4. 논의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다음의 논의를 하고자 한다.

1) 결혼은 개인의 자유 선택이다.

본 연구는 현제 다양한 직업군의 남녀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혼인 적령기는 직업군과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여성의 경우 28세에서 32세 남성의 경우 29에서 34세 까지라는 결혼에 대한 연령 규준을 보여 준다. 하지만, 개인적 측면에서의 결혼 장애 요인에 관한 설명에 대해서는 연령별, 성별, 직업군별 뚜렷한 대립된 양상들과 함께 공통적인 점을 제안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점이다. 그것이 자발적 이였던 비자발적 이였던 간에 개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참가자 들은 동의를 하였다. 미혼자들은 모두 결혼하기를 원하고는 있으나, 특히 전문직 여성들의 경우는 결혼을 꼭 해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고 있었다. 이들은 본인의 교육수준이나 안정적인 직업지위, 경제적인 여건 등이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즐겁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결혼 연령에 대한 참가자들의 이중적 잣대도 발견 되었다. FG의 진행 중, 결혼 장애라던가 결혼 지연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참가자들을 종종 만날 수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35세 이하의 참가자들 일수록 강했다. 즉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연령 규준과는 별도로 본인이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결혼적령기가 되고, 자신들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2) 결혼기회를 높이는 사회적 중재가 필요하다.

전문직 남성들의 경우, 결혼할 준비를 하는 과정이 길었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이 비로소 준비가 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었다. 비교적 연령층이 높은 참가자를 포함하고 있었던 전문직 여성 집단의 경우 이성과의 만남을 위한 기회의 제약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뽑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결혼에 대한 간접적인 사회적 중재에 대한 요구도 갖고 있었다. 여성 전문인들의 경우, 직장에서 타 직장과 연합으로 또래- 비슷한 조건의 이성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1) 참가자들의 소속직장에 대한 신뢰감과 (2)유사 업종에 있을 경우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대상을 만날 확률이 높은 동시에 (3) 자신의 사회적 위치(전문직)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대상을 선택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의 경우, 직장에서의 배우자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이였다. 직장의 특성상 불가능한 경우도 많았으며, 그 동안 유사 프로그램의 운영에서 매우 부정적 체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결혼과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의 기회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였다.

결혼에 대한 교육의 기회--예, 세미나 워크샵, 등을 통한 이성교제의 기회제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좋은 반응을 보였다. 특히, 여성 전문인 참가자자들의 경우 매칭프로그램의 제목으로 설정된 행사는 절대 참가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매칭프로그램의 기능을 하는 세미나 혹은 결혼관련 교양교육 프로그램들은 환영하며 참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따라서 직업의 전문성을 개발 할수록, 연령이 들수록 이성교회의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전문직 여성들의 동질혼적 요구를 채우기 위한 매칭프로그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직장, 사회적 활동의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결혼장려를 위한 국가의 정책은 보편적이어야 한다.

또한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전문인 집단의 경우, 대부분의 신혼부부를 위한 국가적 정책의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눈에서 보면 비현실적 기준의 국가주도 지원정책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결혼・육아관련 프로그램의 참여도를 낮추고 있으며 오히려 결혼 출산장려 정책에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현 기준으로는 정부 지원이 거의 불가능 하여 아예 기대감을 갖지 않는 중산층 이상의 예비 부부 들의 결혼 후 출산 시기가 미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문직 여성참가자 들 중 한 사람은, 자신의 30대를 출산과 양육에 투자한 언니를 보면서 본인(30대 초중반)의 삶을 즐겨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응답 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현금지원에서만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정부의 단편적인 결혼 장려 정책은 오히려 다자녀 양육이 가능한 전문인 집단의 결혼의 결정 시기와 출산 시기를 늦추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전문직. 준전문직에 종사하는 미혼자들이 응답한 결혼에 대한 태도 및 결혼지연요인을 분석해 보면, 이들에게 결혼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선택이므로 결혼선택을 안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남녀 모두 직업개발에 대한 투자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직은 직업의 특성상 직업개발에 필요한 장시간의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평균 결혼연령을 넘기게 되고, 전문직 종사자들이 지각하는 결혼 적령기 역시 늦어지게 된다.

전문직에 취직하고 지속적으로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는 결혼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에서 남녀 차이는 없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연령효과는 남녀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이는 결국 결혼지연으로 나타나며 결혼정보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어려워진다. 그러나 전문직 남성들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이성교제의 기회가 제한되지는 않으며, 사회적 중재의 한 방안인 결혼정보회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자유로웠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결혼장려 정책들은 그 대상이 한정되므로, 전문직 미혼남녀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들은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이들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두섭 외(2007). 저출산 사회의 결혼・자녀양육과 가족생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8-02.

이삼식 외(2006). 2005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정석(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은기수(1999). 생애과정이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 생애사건연쇄분석. 한국인구학, 22(2), 47-71.

최세은・옥선화(2003). 30대 기혼남녀의 초혼연령 결정요인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1), 53-73.

이수진(2005). 젠더관점에서 본 결혼선택의 규정요인. 노동정책연구, 5(1), 131-156.

박경숙・김영혜・김현숙(2005).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 계층혼, 성역할분리규범, 경제조정의 우발적 결합. 한국인구학, 28(2), 33-62

은기수(2004). 가치관과 혼인 및 출산:전국가족조사에 따른 한국가족의 현실과 정책전망. 여성부.

Auh, S.(2006, April). Semi-Annual Report of Iowa Aging and Disability Resource Center. Reported to Administration on Aging, Center for Medicaid and Medicare, and Lewin Group. Baltimore, MD: Lewin Group.

Auh, S. & Shelley, M.(2007, September). Evaluation of Iowa Department of Elder Affairs' Public Service Announcements. Reported to Iowa Department of Elder Affairs. Ames, IA: Research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

토 론

미혼남녀의 결혼지연에 관한 연구
- 전문·준전문직을 중심으로 -

이 수 희(서울대학교 강사)

I. 들어가는 말

낮은 출산율은 미래 국가의 생산성과 경쟁력 약화라는 측면에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 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응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살펴보면, 아이 연령에 따른 지원, 임산부를 위한 지원, 일하는 부모의 출산 양육 지원,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다양한 가정에 대한 지원 등으로, 저출산과 관련이 깊은 대상군인 미혼남녀에 대한 지원정책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더욱 본 연구는 시의 적절한 연구라고 보여 집니다.

이런 점에서 본 토론자는 먼저, 본 논문의 구체적 의의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논의가 필요한 점이나 토론자의 의견을 첨가해 보고자 합니다.

Ⅱ. 본 논문의 의의

1. 연구 주제 면에서 : 저출산의 직접적 결정 요인인 결혼지연의 원인을 심도 있게 규명하고자 한 점, 이는 본 연구의 대상군인 미혼남녀를 위한 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특히 미래의 국가 경쟁력과 보다 관련성이 높은 전문직·준전문직 미혼남녀를 위한 저출산 대응정책 마련이 더욱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2. 연구 방법 면에서 : 정량적 분석에서는 얻을 수 없는 보다 세부적이고 심층적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연구방법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활용한 점이 돋보입니다.

3. 연구 결과 해석 및 논의에서

첫째, 흔히 알고 있는 내용 또는 사회적 통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점, 이러한 결과가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전문가 집단의 경우, 자신의 커리어가 개발될수록 이성교제의 기회가 감소하는 점이, 남성전문가 집단의 경우, 자신의 커리어를 높이는 문제나 부모 간섭으로 인한 결혼대상의 범위가 좁아지는 점이 결혼의

장애요인으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직 여성들이 결혼 대상군에서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현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안 마련의 시급함을 가시화시켜준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으로 보여 집니다.

둘째, 여성의 직장생활이 결혼 결정에 대한 영향력 면에서 여성 본인과 남성의 배우자에 대한 태도 차이, 결혼정보회사의 여성전문직과 남성전문직 간의 이중 구조 반응 등으로부터 결혼기회를 높이는 사회적 중재가 필요함을 도출해 내고 있는 점 역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4. 논의를 통한 제언에서 :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결혼 장려 정책들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전문직 미혼남녀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의 시급함의 근거를 제공하는 연구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Ⅲ. 논의 및 보강이 필요한 부분

1. 연구 내용 면에서

첫째, 준전문직, 결혼지연 범위를 제시해 준다면 연구 대상, 연구 내용이 보다 분명해 질 것이라고 봅니다.

둘째, p.1:31-33의 결혼지연 규명을 위한 조사 내용과 pp.2-3의 선행연구, p.3의 연구문제 등에서 논리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도록 정리가 필요합니다. 즉, 연구문제에서 결혼지연 태도와 결혼지연 요인을 보고자 했다면 p.1:31-33의 조사내용에서 결혼지연 태도를 위해서 어떤 내용을, 결혼지연 요인을 위해 어떤 내용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다면 좀더 연구가 체계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표 1> 참조).

<표 1> 결혼지연 연구를 위한 조사 내용과 선행연구와 연구문제 관련성 비교

p.1:31-33의 결혼지연 연구를 위한 조사 내용	pp.2-3의 선행연구	p.3의 연구문제
	미혼남녀의 **결혼지연에 대한 연구** 고찰	
남녀의 결혼 의향, 결혼계획,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결혼 지연의 영향 요인, 결혼에 관한 정부에 대한 생각	・**미혼남녀의 결혼태도**(결혼계획 유/무, 긍정적/부정적, 필수/선택), ・**결혼의향**(남성>여성 ==> 결혼에 대한 인식 차: 혜택/비용, 영향요인 남녀 차: 교육수준과 취업상태/독립가구 거주여부와 성과 혼전동거에 대한 개방적 태도) ・**결혼시기**(결혼 연령에 대한 규범: 남성<여성, 결혼 전 생애과정에 대한 규범: 남성>여성, 교육력 영향: 1990-1997년 결혼 여성>1998년 이후 결혼 여성, 취업 유무: 여성의 경우)	**결혼지연 태도, 결혼지연 요인**

2. 연구 방법 면에서

첫째, 일반적으로 포커스 그룹의 연구방법에서는 ① 참여자는 동질적이지만 서로 간에 낯선 사람들을 모집하고, ② 진행자가 많이 개입하는 비교적 구조화된 인터뷰에 의존하며, ③ 한 그룹 당 6명 내지 10명 내외이고, ④ 한 프로젝트 당 3개 내지 5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지며,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료 수집을 중단할 때의 판단기준은 이론적 포화[1]가 될 때 입니다(김성재 · 오상은 · 은영 · 손행미 · 이명선,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다양한 직업군의 남녀 성인을 중심으로 진행 중에 있으므로(p.7:2), 이론적 포화가 될 때까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후 분석을 보강한다면 보다 질 높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서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최근 본 토론자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이용해서 한 연구(이수희 · 유태명, 2008)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수집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6명씩 3회에 걸쳐(11월 3일, 10일, 14일) 실시했으며, 매회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실시되었고 인터뷰 직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연구자들끼리 디브리핑(Debriefing) 모임을 가졌다. 또한 연구 보조자에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진행 시 철저한 노트를 하도록 했다.

자료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로부터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현장 노트(포커스 그룹 진행 중의 기록), 오디오 테이프를 이용하여 포커스 그룹 시행 중 내용 및 직후의 디브리핑 내용 등을 전사(transcription)한 전사본 등이다. 수집된 자료는 파일럿 인터뷰(1시간 33분), 1~3차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전사본(8시간 4분), 1~3차 디브리핑 전사본(1시간 31분) 등 총 A4 용지 172페이지 분량이다.

2)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Krueger(1998)가 제시한 분석과정 즉, 연구시작시기, 포커스 그룹 도중, 포커스 그룹 직후, 전체 포커스 그룹 종료 후 등 4단계 지침 사항을 준수했다. 그 구체적 단계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1단계(연구시작시기)
(2) 2단계(포커스 그룹 진행 중)
(3) 3단계(포커스 그룹 직후)
(4) 4단계(전체 포커스 종료 후)

3. 연구 결과 해석 및 논의에서

첫째, '결과해석 및 논의'에서 다룬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연구문제가 다음과 같아 보입니다.

---

1) 이는 연구자가 면담을 통하여 관련 요인으로 발전시킬 자료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시점이며 비슷한 경우가 반복되고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지 않을 때를 말한다.

1) 전문직 및 준전문직에 종사하는 미혼자의 결혼지연 요인은 무엇인가?

2) 이들의 결혼지연 영향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p.7의 '결혼은 개인의 자유 선택이다'에 대한 본 토론자의 생각을 덧붙여 봅니다.

결혼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분명 개인의 선택이라는 의견에는 동감한다. 그러나 결혼이 제공하는 편익(benefit)과 비용(cost)을 고려해 편익이 많을 때 결혼을 선택할 것이므로(김기원, 2006), 그러한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전문직 여성들의 경우, 본인의 교육수준, 안정적인 지위, 경제적 여건 등이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의 편익이 더 많다면 굳이 혼자서 살겠다고 고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전통적 가족주의, 남성중심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이 제공하는 편익보다 결혼이 초래하는 비용이 훨씬 더 크므로 가진 결혼에 대한 겉으로 나타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되물어 보아 진짜 그들의 생각을 파악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p.8의 '결혼장려를 위한 국가의 정책이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토론자는 보편적이기보다는 계층별 필요에 따른 다양한 정책 마련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문헌]

김기원(2006). 경제학 포털. 필맥.

김성재 · 김후자 · 이경자 · 이선옥(2000).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 현문사.

김성재 · 오상은 · 은영 · 손행미 · 이명선 역(Morgan, D.L. 저, 2007). **질적 연구로서의 포커스 그룹.** 군자출판사.

이수희 · 유태명(2008).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실천적 문제 중심 가정과 교육과정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0(3), 107-129.

한국여성개발원(2006). 제1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2006-2010)과 여성. 제33차 여성정책포럼집.

Krueger, R.A.(1998). *Analyzing & Reporting Focus Group Results(Focus Group Kit6)*. Thousand Oaks, CA; Sage.